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10월은 승리의 달

# 인류는 승리자를 본받아 지상천국 이뤄야 한다

### 영생은 '나'를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 도의 목적은 생명력의 확장이다

구도(求道)는 우울하고 그늘진 마음을 버리고 밝고 쾌활한 마음을 가지려는 몸부림이다. 밝은 마음은 왕성한 생명력에서 나온다.

구도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주만물을 살리려는 치열한 희생이다. 나를 희생함으로써 생명력이 확장된다.

구도는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간절한 마음의 투쟁이다. 승리의 마음은 생명력을 강화시킨다.

#### 승리자란 '나'를 이긴 자이다

승리자란 도를 완성한 존재이다. 승리자란 나를 버리고 하나님(부처님)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간이다. 그래서 승리자에게는 음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없고, 항상 쾌락 속에서 희열이 솟아난다.

당신이 만일 승리자가 된다면 슬픔 대신 기쁨이, 불안(不安) 대신 평안이, 나약함 대신 강함이, 불만 대신 만족이 마음속에 샘솟게 될 것이다. 그는 모든 고통을 던져버리고 끝 간 데 없는 희열의 삶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 인류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드디어 인류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전령이 이 땅에 출현하였다. 바로 1980년 10월 15일, 하나님께서 숨기고 감추고 극비로 진행해 온 '인류



부시 대통령 초청 만찬회에서 필그림 상원의원과 인사하는 승리자 조희성 선생(중앙)

구원 프로젝트'의 첫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6000 년전 하나님은 마귀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승리자 한 분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6000 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 마귀의 비밀을 캐내어서 그 마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셨으며, 드디어 그 무기를 사용할 승리자 한 분을 갈고 다듬고 키워서 출현시켰다.

하나님의 첫 열매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과의 투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 '나'를 이긴 승리자에게 주는 선물이 영생이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은 '영생'이다. 죽은 뒤의 영혼의 영생이 아니라 '살아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승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준다고 기록하였다. 생명

과일을 먹게 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등등의 예언이 바로 그 포상인데 그 뜻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다.

#### 승리자는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한다

승리자 조희성 선생이 출현한 지 벌써 34년이 되었다. 승리자는 1981년 8월에 경기도 부천시 역곡1동에 '승리제단'을 설립하여 영생의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죽을병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하였고, 세계공산주의를 없애고, 한국에 태풍과 장마를 막고, 남북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고, 계속 풍년들게 하는 5대공약을 지킴으로써 승리자 구세주가 분명함을 만천하에 알리셨다.

승리자 구세주는 손오공처럼 분신(分身)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바 온 세상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데 천지공사의 순서에 따라 먼저 승리제단 신도들을 구세주로 만든 후 한국사람들을 영생체로 만들고, 그 다음 전 세계 인류를 영생체로 만든다고 인류구원프로젝트의 순서를 정하였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순서에 따라 승리제단에 많은 구세주 후보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인류 구원과 천국건설을 위해 구세주가 되고 싶은 구도자들은 이곳에 노크를 하시기 바란다\*

김충천 기자



#### 본부제단 노방전도 열기 후끈

본부제단 6개 지역이 벌이는 노방전도 열기가 매우 뜨겁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지역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노방전도에 시민들의 반응이 점점 달궈지는 모습이다.

특히 5지역(지역장 박철수 승사, 지회장 신순이 권사, 부지회장 강춘희 권사)은 9월 15일 탑골공원 앞에서 패널을 설치하고 전도행사를 가졌는데 많은 시민들이 앞 다투어 영생의 진리 말씀을 알아보고, 승리신문 구독 신청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지역장인 박철수 승사의 말에 의하면 "메가폰을

들러매고 영생의 진리를 외치니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신순이 권사, 강춘희 권사, 임윤희 권사, 강향숙 승사가 육성으로 영생의 진리를 외치면서 알아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니 사람들이 점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삼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패널에 눈길을 한 번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을 해서 안 되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안 되면 또 사람이 릴레이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기어이 회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19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2명은 차후 연락하기로 하는 놀랄만한 성적을 올렸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5)

### "머르장머리가 없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너와 내가 없어지는 비결은 나를 의식하는 것이 죄요, 특별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나와 너를 의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꽤나 잘났다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만에 빠진 행동을 하는데, 알만 잘나봐야 다 같은 한 몸인 것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체요 자손입니다.

완성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나요, 내가 난데 나무라면 날 나무라 는 것이 되니 나무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르장머리가 없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요 내 자식인 고로 우리는 다 한 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눈 높이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만에 빠진 행동을 하는데, 알만 잘나봐야 다 같은 한 몸인 것입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자체요 자손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하십시오!



## 무조건 웃어라

당신은 왜 도를 닦는가? 고통과 번뇌의 제거, 진리추구를 위해, 또는 극락왕생이나 천국에 가는 것, 개벽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영생복락 때문인가. 각자 구도의 동기가 다르므로 답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건 간에 도를 닦는 것의 근저(根底)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즉 도를 닦는 기본 목적은 작게는 자신의 행복 추구가 크게는 인류의 행복 추구이다.

석가는 생로병사가 괴로움(苦)이라고 하였다.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확한 말씀이다.

그래서 고통을 떨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도의 목적이다.

여기 승리제단에서는 고통을 떨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무조건 웃는 것이다. '웃어나니? 엄숙한 구도의 길에서 험하게 웃으라니 이게 도대체 될 법한 말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구도란 지난(至難)하고 엄숙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구도자들일 것이

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구도는 고통의 해탈을 통해 지고(至高)의 쾌락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지 않은가. 웃음 속에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웃음이 나온다. 마음이 뭔가 꽉 차있을 때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웃어라. 웃음이 이 시대의 최고의 구도방법이다.

그래서 구세주 조희성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깨어나서 2시간 이상 웃어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30분 이상 웃어라. 이젠 항상 웃으라는 말씀이죠. 사회생활하면 서도 웃어라. 웃으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웃으면 몸속에서 '생명자(biotron)'가 생성된다. 사람은 이 생명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자가 많이 발생하면 건강과 장수는 많아 놓고 하게 되어 있다. 생명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크게 웃는 것이다. 웃는 사람은 하나님(부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 웃기만 웃으면 하나님이 되고 부처님이 꼭 되고야 마는 것이 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새연재 / 김만철 탈북기 승리신문 최초 취재 6면

누구든지 내몸처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구역장회의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 구역장회의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노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